

배워서 남 주기

김남희*

“배워서 남 주니?”

중고등학교 시절 수업시간에 선생님들께서 공부 좀 하라는 뜻으로 하시던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말씀에 뼈뚫한 반항심을 품었던 기억도 있는데……. 우습게도 지금은 배워서 남 주는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가끔 이메일을 통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참여하고 싶은 수업도 많았지만 캠퍼스도 다르고 시간이 자유롭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었다. 마침 논문 중심 일주일 후에 ‘예비교수자 양성과정’이 있어 반가운 마음에 몸담고 있는 학과 식구들을 대거 대동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닷새 동안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유익하고 손에 잡힐 듯 생생한 내용들이었다. 프로그램 참여 후기를 쓸 만큼 글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기억들을 되살려보려 한다.

‘e-Learning을 활용한 강의’는 교수와 학습자간의 on/off-line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었다. ‘학습의 이해’라는 강의에서는 교수자가 가져야 할 학습에 대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주었고, ‘효과적인 강의전략’ 시간에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순서와 접근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학습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예를 직접 보여주었고, 실제 교수님들의 강의 동영상을 보면서 교수자의 강의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

교육
프로그램

* 서울대학교 차세대대학 사회과학 전공 박사과정

는 시간을 가졌다. ‘소집단 토론 지도’는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는 사례들을 소개해주었고, ‘Micro-Teaching 워크숍’ 시간에는 직접 참여자가 모의 강의를 하고 그 모습을 찍은 화면을 다시 보면서 참여자간에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해주었다. 며칠 전에 그때 찍은 동영상 CD를 CTL에서 보내주었는데 아직까지도 쑥스럽고 부끄러워 파일을 열어보지는 못했다.

‘동영상 제작 및 활용’ 시간에는 자세한 실습을 통해 사진과 파워포인트 파일들을 동영상으로 편집해보았는데, 천천히 쉽게 가르쳐주는 덕분에 처음 배우는 우리 동료 선생님이 학과 워크숍 때 벌써 숨씨를 발휘하기도 했다. ‘학습 흥미 유발’을 위한 시간은 참여자 모두를 잠시도 앉아 있을 수 없게 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토론을 이끌어낸 그야말로 흥미 유발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 진행된 ‘ppt 제작 및 활용’ 시간을 통해 그동안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던, 숨어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는 처음으로 한기찬 방향을 맞은 활기분함과 연건동이 아닌 관악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켜준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배워서 남 주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 교수자분들께 적극 추천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